

AUTHOR 황정욱

TITLE 갈뱅과 오늘의 개혁 교회-교회론을 중심으로

IN 종교개혁기념학술강좌

(December,2004):121-148

칼뱅과 오늘의 개혁 교회-교회론을 중심으로

황 정 욱 교수
(한신대학교 교회사)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주로 칼빈의 교회론에 주안점을 두고 논술할 것이며 결론에 가서 그의 전통을 물려받은 한국 개혁교회가 칼빈의 입장을 얼마나 충실하게 계승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본격적 비교를 위해서는 한국의 여러 장로교회 교단들의 교회론을 별도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사도 신조의 구조에 따라서 즉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제 3권에 이어서 제 4권, 교회론을 추가하고 있다. 이것은 칼빈이 교회론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보여준다. 칼빈은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을 넣고 증가시키고 그 목표에 이끌기 위한 외적 보조가 필요하므로 신은 이 보조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약함을 돕는다”고 말한다.¹⁾ 이에 따라서 그는 교회의 본질, 그 직제와 권세, 성례전, 그리고 시민 정부에 대하여 다룬다. 즉 칼빈의 교회 본질 이해로부터 직제론과 성례전론과 시민 정부론이 나왔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 이해를 논하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4, 1, 1.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교회의 본질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credimus ecclesiam)고 고백할 때,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에 의하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즉 선택받은 무리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들의 선택받았음은 예외 없이 소명과 칭의에서 드러난다. “교회는 신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일원된 자들은 멸망하거나 또는 나쁜 결과를 맞게 될 수 없다.”²⁾ 예로부터 있었던 신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속한다는 구원의 확신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리라는 약속에 근거한다. 신은 우리를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했다. 즉 그리스도와의 친교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하여 그의 형제로서 인정받는다. 누가 선택받은 자로 예정되었는가는 믿음에 달려 있다.³⁾ 이처럼 그는 일차적으로 선택론의 맥락 속에서 교회를 이해하였다. 또한 이런 이해는 그 후에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신의 선택이다. 교회에 속함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 창세 이래 산 자뿐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포함하는 신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불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2) OS, 1, 87.

3) Ibid., 88.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가시적 교회는 인간 편에서 보면, “한 신과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로 고백하는 지상에 흠어져 있는 전체 인간 무리를 표현한다.”⁴⁾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 속에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고 명목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있다.” 불가시적 교회는 신의 눈에만 보일 수 있는 교회이며, 따라서 어떤 인간도 확실하게 선택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 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신임을 자칭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현실적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와 일치할 수 없다. 이미 아우구스틴은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에서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구별하였다. 이런 구별의 배경에는 플라톤적 관념론이 깔려 있었다. 즉 이상적 교회와 현실적 교회 사이의 괴리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도나투스파가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를 강조하며 가톨릭 교회와의 분열을 기도한 반면, 아우구스틴은 현실적 교회 내에 믿는 자와 불신자가 혼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역설하면서 도나투스파의 분파주의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한편 칼빈이 『기독교강요』 초판을 집필할 당시 그의 논적은 로마 가톨릭교회였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누구라도 세례를 통해서 입교가 가능하였고, 오래전부터 교회는 거의 신국과 동일시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로마교회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칼빈은 불가시적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제네바 목회 현실 속에서, 그리고 재세례파와의 논쟁 과정에서 그 역시 아우구스틴과 마찬가지로 가시적 교회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아우구스틴

4) Inst., 4, 1, 7.

과 마찬가지로 관념론에 입각한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에게서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관계는 베버(Otto Weber)가 표현한 대로 교회의 신적인 면과 인간적 면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칼케돈 신조가 그리스도의 양성을 구별하여 말하듯이, 우리가 교회의 양면성을 말할 수 있다면⁵⁾ 우리는 양면을 구별하면서 또한 어느 한 쪽도 무시할 수 없다. 가시적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와 혼동될 수 없지만 또한 분리될 수 없다. 불가시적 교회는 인간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가시적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불가시적 교회를 지향하지만 또한 교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가시적 교회와의 “친교를 존중하고 유지하도록 명령받는다.”⁶⁾

앞에서 말한 대로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판단할 수 없는 한, 칼빈은 “신앙 고백, 삶의 모범, 그리고 성례전 참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같은 신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⁷⁾ 이 점에서 칼빈의 입장은 루터뿐 아니라 로마교회의 입장과의 유사하다. 그가 지향하는 교회는 참으로 거룩한 자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중교회였다. 이런 관점의 배경 하에서 칼빈이 파렐과 더불어 1537년에 제네바 시민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서에 서명하도록 한 조치는 이해될 수 있다.

5) Otto Weber, “Calvins Lehre von der Kirche,”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Neukirchen, 1968), 24.

6) *Inst.*, 4, 1, 7.

7) *Ibid.*, 4, 1, 8.

이 시도는 당시 제네바 시민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지만, 1541년 제네바에 귀환했을 때 칼빈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였고 그의 뜻이 수락되었다. 16세기 제네바 교회는 일종의 국가교회였고, 당시 국가교회 외에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자유, 즉 현대적 의미의 양심의 자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칼빈은 로마교회의 타락한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현실적 교회에 있어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조』(1530)의 영향에 기인한다.⁸⁾ “신의 말씀이 순수히 선포되고 청취되며,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서 집전되는 곳이면 어디나 신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⁹⁾

여기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 그리고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 순서에서 드러나듯이 말씀이 성례전에 우선한다. 성례전은 일종의 가시적 말씀이다. 그러므로 신의 말씀이 인간적 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한다. 말씀과 인간적 도구의 두 요소 가운데서 인간적 도구는 말씀에 종속된다. 말씀이 인간적 도구에 우선한다. 말씀은 인간 선포자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에게 청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칼빈은 말씀 선포의 대상, 즉 성도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인간들이지만, 교회를 일반 사회적 공동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인간들을 모으는 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작용이기

8)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7항 참조.

9) *Inst.*, 4, 1, 9.

때문이다. 또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도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달려있다. 이런 이유로 개혁파 교회가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가 아니라, 권징(disciplina)을 추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은 칼빈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칼빈은 우리에게선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권징 제도라고 할지라도 양자를 구별해 낼 수 없다고 확신한다.¹⁰⁾ 칼빈은 권징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는 권징의 효력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말한다.

“교회 권징의 방법과 조치는 언제나 평화의 끈 안에서 영의 일치에 관련되어야 한다. 사도는 상호 인내의 이 유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치유로서 징계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위협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치유도 될 수 없다.”¹¹⁾

권징은 선포된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관계되는데, 만일 말씀 선포자와 말씀을 듣는 인간을 교회의 제 3요소로 간주할 경우, 이것은 신인협동설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이런 사고는 칼빈과 거리가 멀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교회의 두 표지와 가시적 교회는 어떻게 관련되어야 하는가? 칼빈은 가시적 교회는 모

10) *Inst.*, 4, 1, 7.

11) *Inst.*, 4, 1, 16.

12) 우리는 Melanchthon에게서 이런 경향을 발견한다: *Examen ordinandorum*, CR., 23, 75 참조.

든 믿는 자들의 무리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교회의 두 표지는 가시적 교회가 최소한 가져야 할 형식 조건을 지시하는가? 가시적 교회의 두 표지는 비가시적 교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로 이해되는가? 루터파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사고하였다.¹³⁾ 그러나 칼빈은 다르다. 교회가 “말씀 사역을 가지고 그것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례전의 집행을 가진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교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열매가 없지 않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¹⁴⁾ 즉, 칼빈은 교회에서 신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될 때, 말씀은 그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에게는 말씀과 성례전이 다만 교회의 형식 조건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적 표지이다.

이제 가시적 교회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자. 제 4권, 제 1장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이므로 우리가 그것과 일치를 유지해야 할 참된 교회.”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 이 표현은 이미 키프ريان과 아우구스틴에 의해 즐겨 사용되었던 것이다.¹⁵⁾ ‘어머니’가 가지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그 여성성일 것이다. “신을 아버지로 하는 자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¹⁶⁾ 어머니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13) *Est autem ecclesia Christi proprie congregatio membrorum Christi, hoc est sanctorum Habet autem ecclesia proprie dicta signa sua*(CA Var., 7, CR., 26, 356).

14) *Inst.*, 4, 1, 9.

15) Cyprian, *De catholicae ecclesiae unitate*, 6; Ep. 4, 4; 73, 21; Augustin, *Enchiridion* 17, 65; *Sermon* 56, 4, 5 참조.

16) *Inst.*, 4, 1, 1.

양육하고 돌보며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신은 자신을 아버지로 둔 그의 자녀들을 어머니 교회를 통해 출생하고 교회의 “도움과 봉사”를 통해 양육하며 또한 그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돌보도록 한다. 어떤 아이라도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절대 필수적이다. 교회는 자녀 양육과 보호의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믿는 자를 위한 학교와 같다. “우리가 평생 학생인 한, 우리의 연합함은 우리로 하여금 학교에서 떠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¹⁷⁾ 그리스도인을 학생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전제한다. 여기서 칼빈은 고대 교회 전통, 즉 교회는 천사처럼 거룩한 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죄인들의 교정 기관이라는 관념을 물려받았다.¹⁸⁾ 칼빈은 이 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면제될 수 없음을 역설한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는 키프리아의 유명한 말은 가톨릭교회의 일치를 역설한 발설인데 로마교회가 이를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이해한 바 있다. 칼빈은 키프리아의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한다. 즉 그는 교회가 인간 구원에 있어 필수적임을 역설하는 취지에서 말하였고, 또한 교회 일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취지에서 말하였다. 그런데 교회의 일치 문제는 칼빈에 있어서 성도의 친교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모든 선택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머리에 의지하고 함께 한 몸으로 성장하며 몸의 지체들로서 함께 연결 접합되어 있다.”¹⁹⁾

17) *Ibid.*, 4, 1, 4.

18) 이런 교회관은 특히 노바티안 논쟁에서 대두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빈이 교회의 일치를 말할 때 바울이 사용한 몸의 비유를 적용한 것이다. 교회는 몸이요, 성도들은 그 지체들과 같다.

3. 교 직

칼빈은 루터처럼 만인 사제론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베버는 칼빈이 일차적으로 공동체보다는 교직에 관심을 두었다고 주장한다.²⁰⁾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교직이 있고, 그 다음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바울이 말한 대로 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이며, 그것에 속한 지체로서의 성도들은 그 안에서 상호 친교를 나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다. 이 말은 공산주의식 물물 공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칼빈은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인용하면서도 물물공유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재산 공유를 사회 질서의 파괴라고 보았다. 추측컨대 뮌스터(Münster)의 재세례파 왕국 사건의 기억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경계심을 갖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는 그 안에서 각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성 속에서 신앙의 일치를 추구한다.²¹⁾ 각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함은 각 지체의 평등을 전제하는 경우 가능하다. 칼빈은 “신이 그들에게

19) *Inst.*, 4, 1, 2.

20) Otto Weber, “Calvins Lehre von der Kirche,” 35 참조.

21) *Inst.*, 4, 1, 3.

나누어 주신 어떤 은사라도 함께 공유한다”는 초대 교회의 은사 공동체를 교회의 이상으로 생각했다.²²⁾ 따라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칼빈은 성직자들과 평신도 간의 로마 교회식 구별을 지양하고, 그 안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한 초대 교회로 복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추첨 때문에 성직자(clerici)라 칭해지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의해 선택되었거나 주님의 몫, 혹은 신을 몫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전체의 칭호인 이것을 자신들이 사칭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산으로서 아버지께 의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베드로도 …… 소수의 사발자를 성직자(cleros)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신의 온 백성을 그렇게 불렀다 (벧전 5:3).”²³⁾

칼빈에게는 교회 내의 성직 계급을 구별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교회 전체가 성직이라는 주장은 루터의 만인사제설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추정된다. 이런 주장은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도 유지되었다: “이 칭호[즉 clerici]는 오류에서 기인했거나 혹은 적어도 그릇된 태도에서 기인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온 교회를 가리켜서 성직(clerus), 즉 주의 유산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²⁴⁾ 여기서 칼빈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이해한 것이 옳은지 혹은 그릇

22) *Ibid.*

23) OS., 1, 206-207.

24) *Inst.*, 4, 4, 9.

되었는지 하는 문제는 내 전문 영역이 아니므로 논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칼빈이 성직 계급을 평신도와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거부감이다. 그가 성직과 평신도, 혹은 백성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다. 우선,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참 교회의 두 가지 표지, 즉 말씀과 성례전을 말했고, 그것의 전달자와 그것의 청취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총칭해서 “학생”이라고 말했다.²⁵⁾ 그는 때로 말씀 선포하는 자와 청취자를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평신도라는 칭호 대신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로 임명되고, 학생으로 명령받은 자들은 한 입으로부터 공통의 가르침을 받는다.”²⁶⁾ 또한 그는 교회를 믿는 자들을 위한 “학교”로 보고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성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²⁷⁾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그가 교육의 주체를 성직자라고 말하는 대신 “교회”라고 말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가시적 교회는 믿는 자들 전체를 의미한다. 그는 교육의 “기능”을 맡은 교사들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할 것을 권면한다.²⁸⁾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직은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이다. 그는 교직의 한계를 다음 논쟁에서 분명히 피력한다: “어떤 이들은 교직의 권위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반면, 다른 이

25) *Inst.*, 4, 1, 4.

26) *Inst.*, 4, 3, 1.

27) *Inst.*, 4, 1, 5.

28) *Ibid.*

들은 성령에 속한 일을 죽은 인간에게 이전함은 그릇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쟁에 대해 그는 말씀 맡은 자는 신의 동역자임이 분명하지만, 일꾼들에게 아무 신적 권위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역설한다.²⁹⁾

칼빈이 제 4권 1장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고, 비로소 제 3장에서 직제론을 논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교회의 본질에서 모든 기본 원칙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해서 직제론을 다룬다는 것이 그의 의도인 것이다. 제 3장 머리에서 그는 말한다: “신만이 홀로 교회를 다스리며, 그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다.”³⁰⁾ 즉, 말씀의 권위가 그 선포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선포자는 말씀에 봉사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것이 그의 직제론의 대전제다.

그가 교회론에서 즐겨 사용하는 것은 바울이 사용한 바 있는 몸의 비유다. 그는 에베소서 4장 16절 인용에서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모든 선택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그들이 한 머리에 의존할 때, 몸의 지체들이 그러하듯이, 한 몸으로 성장하고 함께 연결된다.”³¹⁾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베풀어지므로”,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의 지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몸을 위해 봉사한다.³²⁾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기능은 일차적으로 성령의 은사이며, 다음으로 봉사의 성격을 가진다. 직무는

29) *Inst.*, 4, 1, 6.

30) *Inst.*, 4, 3, 1.

31) *Inst.*, 4, 1, 2.

32) *Inst.*, 4, 1, 3.

성령의 은사에 근거해서만 일할 수 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 (엡 4:7)는 바울의 말에 따라서 각 사람이 받는 직분은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임을 전제한다.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운”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엡 4:11-12). 칼빈은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한 이런 직분들 중 사도, 예언자, 전도자는 임시직으로, 목사와 교사는 항구직으로 분류한다.³³⁾ 이밖에 그는 직분과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7-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인용했는데,³⁴⁾ 여기서 그는 몸에 속한 지체들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는 은사의 성격을 논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칼빈은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성령의 은사이며, 주의 일꾼으로서 기능한다는 전제를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누구나 할 것 없이 은사 면에서는 동등하며 기능에 있어서만 구별될 뿐이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이전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한다. 즉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적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주의 관심, 사랑을 알린다. 두 번째로 인간적 도구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의 겸비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 상호간의 사랑을 이룩하기 위해서 인간적 도구를 세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 일꾼을 통해서 교회에 은사를 분배

33) *Inst.*, IV, 3, 5.

34) *Inst.*, IV, 3, 8.

하고자 한다.³⁵⁾ 그들은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대항자이며,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을 주가 임재하듯이 대해야 하며, 그런 한에서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들을 존중해야 한다. 교회에는 일꾼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적 도구를 통해서 계시를 주기 때문이다. 재세례파들이 그러했듯이 교회의 직분들을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일꾼들은 주가 그를 대항하도록 새운 인간적 도구이며, 주를 위해 봉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처럼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에는 어떤 일꾼들이 있었고 또 있어야 하는가? 칼빈은 교회의 직제를 불변하는 질서로 보지는 않았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를 언급한다. 이밖에도 성서는 장로, 집사를 언급하고 있다. 칼빈은 이 가운데 사도, 예언자, 전도자는 향존직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칼빈은 목사, 박사, 장로, 집사의 네 직제를 주장한다.³⁶⁾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칼빈이 제안한 네 교직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시행된 것을 모방한 것이다.³⁷⁾ 그러나 실제로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박사직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칼빈 자신이 생 삐에르(St. Pierre) 교회의 성서교사로 출발했다가 후에 목사가 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는 목사직이 박사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실제로 제네바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의

35) *Inst.*, IV, 3, 1.

36) *Inst.*, IV, 3, 4.

37) Fr. Wendel, *Calvin*, 50. 주 19 참조.

세 직분이 있었다.

목사의 직무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하는 것이다. 박사의 직무는 신도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장로직에 관해서는, 이들은 시 의회에서 목사, 장로 모임(*consistoire*)에 파견된 전권 위원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직무는 시민의 행실을 감독하고 오류를 저지른 자를 훈계하고 교정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이다. 장로직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유 없이 자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로들은 오늘날과 달리 평신도들 가운데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회에서 선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은 시 의회가 위임한 전권 위원들이었다. 당시 제네바에는 매년 네 명의 시장(*syndic*)이 선출되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목사와 장로들의 평의회(*consistoire*)를 주관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은 순수하게 영적 사항이 될 수 없었다. 더구나 중범죄의 경우 그것은 전적으로 시 정부의 관할권에 속했다. 중요한 것은 평의회 조직이다. 1537년 제안에 비하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안이다. 즉 목사와 평신도(장로)가 함께 모여서 교회 치리를 논의하는 것은 당시 교회에서 없었던 일로서, 서술된 초대 교회의 관습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이나 주교가 자의대로 출교를 남발하던 실정에 비추어서 목사에게만 권징권을 주지 않고 평신도 대표인 장로들과 더불어 회의를 통해 권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것은 후일 대표 민주주의 정신을 산출하였다.³⁸⁾

집사직은 고대 교회에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정을 관리, 분배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빈자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각각 회계집사(*procurer*), 구빈집사(*hospitallier*)라고 부른다. 이들 집사의 선출은 장로들과 동일하다. 집사의 임기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장로 선출과 동일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임기는 역시 1년인 듯하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칼빈이 네 직분을 말하든, 세 직분을 말하든지 간에,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해서 그 아래 주교, 장로, 집사 등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였지만, 반면에 칼빈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에 속한 지체들의 비유에 따라서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가 상호 대등하며 모두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기능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직제 구조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칼빈은 몸의 지체들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몸을 살리듯이 교회의 안의 지체들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권고한다. 이 권고는 단순히 개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 정신에 근거하여 개교회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함으로써 주의 몸을 세울 수 있다. 칼빈은 성도의 교제를 교회 일치의 다른 표현으로 보았고, 이 정신에서 신교 내의 일치를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을 에큐메니칼 운동의

38) 이 제도의 성서적 근거는 딤후전 4:14이다. 목회서신의 어법에 따라서 *episcopos*, *presbyteros*는 상호 교환 가능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목사, 장로는 평의회(*consistoire*)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로교회 원리의 출발점이다. *CR*, 52, 420; 53, 303.

선구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권징

칼빈은 1537년도 『교회 조직에 관한 논제』(*Article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église*)에서 성만찬에 사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참여함을 통해 마치 주의 교회가 사악한 자들의 집단처럼 보임으로써 주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이미 주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교정하도록 출교를 그의 교회에 지시했다고(마 18:15-17) 말한다. 출교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잘못에 수치감을 느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출교는 사악한 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고 그들의 예를 통해 같은 잘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³⁹⁾ 출교는 초대 교회에서 교회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 잠시 동안 실천되었으나 그 후 일부 사악한 주교들이 이것을 독재적으로 남용하여 왜곡하였다. 그러나 출교는 본래 주가 제정한 것 중에서 구원을 위해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말한다.⁴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출교는 성서에 쓰여진 법대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시 정부는 “행실이 좋은 몇 사람”(*personnes de bonne vie et de tesmoignage*)을 선발하며 이들을 시내 각처에 파견하여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장로의 직무에 해당되지만, 칼빈은 당시 장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 그의 교직관이 확고

39) *CO.*, 10a, 8-9.

40) *Ibid.*, 9-10.

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541년에 9월 13일에 귀환한 칼빈은 『제네바 교회 헌법』(*Les ordonnances Ecclesiastiques de l'église de Genève*) 집필에 착수한다. 이 문서의 특징은 칼빈이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네 교직제를 확립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목사의 직무는 말씀선포, 교육, 훈계, 권면, 성례전 집행 외에 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하는 것이다. 장로들의 직무는 시민의 행실을 감독하고 오류를 저지른 자를 훈계하고, 성찬식에 앞서서 교회원들의 윤리적 검증을 통해 성찬식 참여를 허락하도록 한다.⁴¹⁾

앞서 말했듯이 칼빈은 신앙 고백, 삶의 모범, 성례전 참여에 의해서 신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시적 교회에는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인 많은 위선자들이 섞여 있으며,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판단하는 것은 신의 권한에 속하며 인간의 권한 밖에 속한 것임을 말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교회가 믿는 자들의 삶을 감독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⁴²⁾ 그렇다면 과연 권징은 필요한 것인가? 권징의 목적은 무엇인가?

칼빈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현재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의미에서 거룩하다.⁴³⁾ 따라서 교회의 성결성이 곧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권징이 교회의 거룩성을 이루어내

41) *CO.*, 10a, 22.

42) *Inst.*, 4, 1, 7.

43) *Inst.*, 4, 1, 17.

는 방편이 될 수는 없다. 칼빈은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 집단이라도 권징 없이 유지될 수 없다면, 교회는 권징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⁴⁴⁾ 칼빈은 초기부터 언제나 질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만일 그것을 듣는 자가 말씀을 준행함이 마땅한 일이다. 권징은 교회의 표징인 말씀 선포에 종속되는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 이때 그는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말씀에 따라서 권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 몸의 한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교정하는 일은 모든 믿는 자의 의무이다.

“만일 어떤 자가 그의 의무를 고의로 행하지 않거나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단정하게 살지 않고 혹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범할 때 그는 훈계를 받음이 마땅하며, 누구라도 자기 형제를 훈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들은 특별히 이 일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무는 백성에게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그는 권징의 한계를 잘 안다. 권징은 목회적 치유책일 뿐이다: “교회 권징의 경건한 근거와 척도는 언제나 평화의 끈 안에서 영의 일치를 고려해야 한다 ……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치유로서 징계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며 따라서 아무런 치유책이 될 수 없다.”⁴⁶⁾ 권징은 어디까지나 교정책이며 징계가 그

44) *Inst.*, 4, 12, 1.

45) *Inst.*, 4, 12, 2.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칼빈은 권징에 있어서는 죄인을 부드러움으로써 다룰 것을 권면한다.⁴⁷⁾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인간이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5. 노회정치

칼빈이 종교회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것은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공통적이었다. 즉 중세 교회의 회의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칼빈은 노회에 대해서 다음 전제를 가진다: “그리스도가 홀로 모든 노회를 주관해야 하고 인간이 그의 권위를 나누어 가질 수 없다.”⁴⁸⁾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만이 노회를 이끌어 가야하고, 어떤 인간적 권위가 노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 성서적 근거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회의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모든 모임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회를 그릇된 노회와 구별할 특별한 표지를 정했기 때문이다. 그 표지란 바로 신이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계약이니, 제사장들은 신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말 2:7).⁴⁹⁾ 우리는 칼빈이 주장하는 교

46) *Inst.*, 4, 1, 16.

47) *Inst.*, 4, 12, 9.

48) *Inst.*, 4, 9, 1.

49) *Inst.*, 4, 9, 2.

회의 표지 중 첫 번째가 말씀의 올바른 선포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직자들은 신의 말씀을 백성에게 대언하는 자이다. 칼빈이 보기에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신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러므로 신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의 노회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노회가 아니며 따라서 그릇된 노회라고 판단한다. 이것은 칼빈이 언급한 표지론에 근거해서 로마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면 정당한 노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교리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가장 확실한 치유법은 참된 주교들의 노회가 소집되어 문제가 되는 교리를 검토하는 것임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르며, 교회의 목사들이 합의하는 이런 결정은 각자가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혹은 일부 개인이 작성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무게를 가질 것이다.”⁵⁰⁾ 칼빈은 노회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길 때마다 일치를 얻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임을 인정한다. 여기서 그가 특별히 “참된 주교들”의 노회를 강조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항상 아타나시우스, 바실, 키릴과 같은 진리의 수호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는 또한 디오스코로스과 같은 자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노회가 채택한 결정이 언제나 참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칼빈은 노회 결정에 관해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칼빈이 목사와 장로, 집사들을 상호 평등한 교직으로 보고, 상호 감독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들로 의회를 구성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교직의 경우처럼 의회 구성에 관해서도 어떤 확고한 규

50) *Inst.*, 4, 9, 13.

칙을 정하지 않았고 지역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6. 결 론

이상의 논술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칼빈은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또한 인간은 현실적 삶에 처해 있는 한, 가시적 교회의 한계를 알면서도, 이 교회에 속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한다. 가시적 교회를 부정하고 불가시적 교회를 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가시적 교회를 믿는 자의 어머니요 학교라고 표현했다. 교회는 신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므로, 여기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한 신의 백성으로서 평등하다. 그러므로 칼빈은 자주 몸의 비유를 사용하여 성도의 교제를 논하며 여기에서 그의 직제론을 전개한다. 그의 교회관의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이다. 교회에서 말씀이 우선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모두 말씀에 종속한다. 말씀 앞에서 어떤 인간도 평등하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의 도구로서 신적 권위를 사칭할 수 없다. 이것은 교직의 한계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를 멀리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칼빈은 교직의 특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능면에서 그렇고 신적 권위가 그 인간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칼빈은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구별한 것은 사실이지만,⁵¹⁾ 양자의 구별을

어떤 계급적 구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만 질서의 문제이며 기능상의 차이일 뿐이다. 몸의 지체마다 성령의 은사에 입각해서 주어진 기능이 다른 것처럼, 질서를 위해서 기능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그의 권징사상도 교회관에서 전개되었다. 말씀을 듣는 교회는 말씀의 청취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교회 질서를 위하여 권징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권징은 어디까지나 치유 수단일 뿐 징계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안 된다. 권징은 교회의 거룩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회의에 관한 그의 입장은 제네바라는 좁은 틀을 감안한다면, 그가 소극적이었던 것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의 소극적 자세는 칼빈파를 회중교회와 장로교회로 분열시킬 소지를 남겨 주었다. 회중교회는 칼빈의 소극적 자세에 무게를 두었던 반면, 장로교회 정치는 칼빈이 제창한 평의회(consistoire)를 확대하였고, 또한 회의가 가진 장점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술을 근거로 해서 칼빈의 교회의 특징을 (1) 선택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2)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통한 교회, (3) 참 교회의 구별 표지, (4) 교회 질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선택받은 공동체로서 교회 - 그리스도만이 그 머리

칼빈은 교회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선택받은 무리로 규정하고,

51) 그가 『기독교강요 IV』, 12, 1에서 “성직과 백성”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시 관행을 따른 것이며 그가 이런 차별을 인정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가시적 교회는 일정한 표지에 의해 나타남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분리하지는 않으나 구별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다. 회중과 선택받은 자는 동일하지 않다. 오직 신만이 선택받은 자를 아는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 예정된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에 대한 선택론적 이해는 신의 구원 행위에 그 기초를 두었다.

예장 신앙고백서와 기독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모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역설한다. 예장 신앙고백서 제7장, 3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구별한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선택받은 무리로 규정한다. 또한 보이는 교회에는 최후에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진술한다.

반면 기독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제6장, 1절 교회의 본질 어디에서도 선택된 무리로서 교회를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별도 포기하였다. 신앙고백서 제2장 창조와 세계, 제2절 섭리와 예정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성서는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말한다 …… 이러한 질서는 선악의 가치를 초월하여 사람에게 미리 주어진 것으로서 사람의 삶을 제한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인격적 결단으로 그런 조건들을 개선하거나 그 의미를 발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한다 …… 예정 신앙은宿命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은총으로 선택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 본문의 초점은 예정론이 결정론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인간

은 결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음을 역설함에 있다. 교회론과 예정론의 연결은 포기되었다. 한편 신앙고백서 제2장, 1절 ‘교회의 본질’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를 포함한다.” 이것이 유일한 불가시적 교회를 암시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선택 개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예정론이 안고 있는 많은 오해들, 예정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통한 교회

성령은 교회를 향한 신의 사랑을 확증하며 신의 관심에 대한 확신을 준다. 교회에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는 영은 공동체에 특수한 과제를 부과한다. 즉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것은 신앙에서 인식할 수 있으나, 아직 중도에 처한 교회에서는 완전하지 않다. 신앙 자체, 신앙의 견인, 그 궁극적 완성은 성령에 의해 시작되고 견인되고 목표에 도달된다. 믿는 자는 여기서 수동적이 되지 않고, 자랑함 없이 감사의 마음에서 행동한다. 신의 말씀을 따르고 성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한 성도의 공동체는 다만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은 그의 선택받은 공동체를 모으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성례전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신의 선포된 말씀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교회의 제 1표지로 칭해진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최우선권을 부여한 점은 개혁파의 전통이 되었다.

칼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로교가 말씀 선포자에게 일종의 특권을 부여한 것과 장로교회 보수측의 성서 무오설 내지 문자 영감설은 이런 전통의 부산물이다.

(3) 참 교회의 구별 표지

가톨릭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로써 칼빈은 다수 종파나 교회를 거부한다. ‘가톨릭’은 ‘보편적’과 동일시되고 ‘ecumenical’ 일치 안에 있음으로 이해된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파 교회는 자신을 여러 교회 중의 하나의 교회로 이해하지 않는다. 보편적 교회 외에 다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음을 부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분열상은 칼빈의 교회상과는 분명 거리가 멀다. 쾰리파와 통합하여 스위스 개혁 교회를 만들어내었고, 나아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루터파와 제휴하기를 기도했던 칼빈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제네바에는 오늘날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의 본부 WCC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한국 장로교회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열을 거쳐 왔던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개혁파의 신앙고백들 가운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1560)과 『네덜란드 신앙고백』(1561)은 칼빈이 주장한바 교회의 두 표지, 즉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 외에 권징을 추가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교회의 외적 표지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표지에 분명히 권징을 포함시킨다. 이것은

권징을 말씀 선포에 종속된 교회 기능으로 이해한 칼빈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

예수교 장로교 신앙고백서 제7장 교회, 제1절에서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을 언급한 외에, 제2절에서 말씀의 훈련과 권징을 말한다. 이로써 권징은 교회의 주요 기능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3편 권징 1장 1조는 권징의 뜻을 이렇게 설명한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재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훈련은 권징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범법자들에 대한 징벌이라는 부정적 측면에만 비중을 둘 수 있다. 사실상 목회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믿는 자들을 양육하고 후원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4) 교회 질서

교회 정치는 주교직을 배제한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교다. 교회 안에 계급과 권세는 없다.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 또한 노회 정치 제도는 일정한 틀에 매이지 않는다. 교직의 수는 상이하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울의 모델을 지향하며 은사와 기능으로 이해된다: 설교, 성례, 가르침, 훈계와 권징, 봉사. 고전적인 네 직분에서부터 역사적 발전 속에 목사직과 장로직, 집

사직은 교수되었다.

현실적으로 한국 장로교회가 과연 이런 칼빈의 사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동등한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칼빈의 생각과 일치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교회나 노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상호 긴장관계에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칼빈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물론 칼빈도 제네바 교회 장로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제네바의 장로들은 시로부터 전권을 받은 나으리들이었고, 칼빈은 시 정부에 의해 고용된 일꾼이었다. 칼빈은 교회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 정부와 투쟁을 해야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로들과 마찰이 빚어졌다. 따라서 칼빈의 경우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교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전통적 유교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지 칼빈의 정신과는 무관한 것이다. 교단 총회장 선거에서 금품으로 유권자들을 매수하는 행위는 바로 이런 사고에서 나온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교일진대, 교단의 총회장을 특권으로 간주하고 그 지위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진정한 칼빈의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황정욱 교수님의 “갈벡과 오늘의 개혁교회-교회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1

이 양 호 교수
(연세대학교 교회사)

이 원고는 칼빈의 교회론과 그 교회론에 비추어 오늘의 개혁교회, 특히 한국의 개혁교회를 다룬 것으로 칼빈의 교회론을 이해하고, 그 교회론에 근거하여 한국교회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자는 칼빈이 선택론의 맥락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credimus ecclesiam)고 고백할 때,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에 의하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즉 선택받은 무리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들의 선택받았음은 예외 없이 소명과 칭의에서 드러난다. ‘교회는 신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일원된 자들은 멸망하거나 또는 나쁜 결과를 맞게 될 수 없다.’ 예로부터 있었던 신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속한다는 구원의 확신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리라는 약속에 근거한다. 신은 우리를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했다. 즉 그리스도와의 친교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하여 그의 형제로서 인정받는다. 이런 한에서 누가 선택받은 자로 예정되었는가는 믿음에 달려 있다. 이처럼